

	보 도 자 료	
	작성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선임연구위원 (044-960-0668)
	배포	국토연구원 지식홍보팀(044-960-0582)
보도일시	■ 즉시보도가능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국토研, 국토정책Brief 제1055호 발간

-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중 89%가 위케이션, 한달살기, 세컨드홈, 복수거점 등 다지역 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66.9%는 다지역 거주가 생활인구 증가와 지방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5호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을 통해 다지역 거주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은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생애주기·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한 유연한 다지역 거주 개념 적용, 세대별 인식·거주이동성·정책 수용성을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 체류에서 정주 및 이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정책 지원, 세대별 추진 전략의 다각화(다지역 거주의 목적별·단계별접근)
 -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 및 정주 인프라 구축, 청년공동체 조성, 마음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손님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
 - (가족단위 육아세대) 가족·아동 맞춤형 체류정보 플랫폼 구축, 농어촌 유학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제공, 양질의 주거공간 마련과 주거비 지원 연장이 필요
 - (중장년층 및 은퇴 초기 노년층)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 중장년층을 위한 전환기 체류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

첨부. 국토정책brief 1055호(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팀 담당자 (☎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